

2017년 10월 20일

# 투자전략 Daily

## • 이머징마켓 투자전략

중국 3분기 GDP 둔화, 우려보다 기회를 찾자

## • 채권분석

10월 통화정책회의: 0.25%p 금리인상 소수의견

## • 중화권 증시 동향

상승 모멘텀 약화 우려에 중화권 증시 약세

##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한솔케미칼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송원산업 외 5개 종목

## • 산업/기업분석

항공, 롯데하이마트, 씨엠에스에듀, 원익IPS, 화승엔터프라이즈

##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캘린더

전 략 총 괄 | 노근환  
투 자 전 략 | 박소연  
시 황 분 석 | 김대준  
계 량 분 석 | 안 혁  
스 몰 캡 전 략 | 정훈석  
해 외 주 식 | 백찬규  
중 국 시 장 | 최설화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글 로 벌 기 업 | 정희석  
자 산 배 분 전 략 | 정현종  
경 제 분 석 | 박정우  
채 권 분 석 | 오창섭  
크 레 디트 | 김기명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유가증권	구 분		10/13(금)	10/16(월)	10/17(화)	10/18(수)	10/19(목)
	종합주가지수		2,473.62	2,480.05	2,484.37	2,482.91	2,473.06
	등락폭		-1.14	6.43	4.32	-1.46	-9.85
	등락종목	상승(상한)	272(0)	394(1)	403(1)	289(2)	467(0)
		하락(하한)	519(0)	411(0)	384(0)	510(0)	316(0)
	ADR		81.95	86.29	86.69	83.06	87.80
	이격도	10 일	102.54	102.42	102.16	101.64	100.82
		20 일	103.13	103.11	103.02	102.71	102.06
	투자심리		50	60	70	70	70
	거래량	(백만 주)	235	224	199	244	233
(십억 원)		6,824	6,175	5,323	5,827	6,763	
코스닥	코스닥지수		663.08	659.41	670.51	668.42	667.10
	등락폭		-3.46	-3.67	11.1	-2.09	-1.32
	등락종목	상승(상한)	269(1)	358(1)	671(3)	375(3)	665(3)
		하락(하한)	896(0)	803(0)	444(0)	756(0)	470(0)
	ADR		74.97	75.95	78.44	75.22	79.08
	이격도	10 일	101.54	100.82	102.07	101.35	100.88
		20 일	100.65	100.05	101.63	101.25	100.99
	투자심리		60	60	70	60	50
	거래량	(백만 주)	617	554	700	714	704
		(십억 원)	4,935	3,894	4,218	4,564	4,274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436.1	1,690.2	1,517.8	576.2	99.5	163.3	160.7	18.5	499.6	101.8
	매도	3,440.6	1,701.3	1,560.6	359.9	125.9	257.2	143.8	18.7	655.2	43.3
	순매수	-4.5	-11.2	-42.8	216.4	-26.4	-93.9	16.9	-0.2	-155.6	58.5
	10월 누계	-361.5	1,604.5	-1,397.7	-70.5	-169.6	-418.3	87.3	-21.2	-805.5	154.8
	17년 누계	-5,871.1	6,803.0	-4,805.0	6,354.1	-1,751.6	-3,400.8	-32.6	-731.5	-5,242.8	3,873.0
코스닥	매수	3,642.5	340.9	283.9	105.8	20.6	32.9	40.3	3.4	80.9	24.1
	매도	3,685.8	316.1	257.3	50.0	24.2	54.6	39.1	3.0	86.5	32.2
	순매수	-43.2	24.8	26.5	55.8	-3.6	-21.7	1.2	0.3	-5.6	-8.1
	10월 누계	409.0	382.9	-720.6	-109.4	-50.5	-232.2	-114.4	4.9	-219.0	-71.2
	17년 누계	3,121.7	2,377.6	-4,164.7	-1,026.9	-370.2	-969.4	-591.0	-116.7	-1,090.4	-1,334.7

## 중국 3분기 GDP 둔화, 우려보다 기회를 찾아

2017년 Target KOSPI	2,600pt
12MF PER	9.86배
12MF PBR	1.09배
Yield Gap	8.2%p

- ▶ 3분기 경제성장률 6.8%로 2분기대비 소폭 둔화, 주로 고정자산투자 둔화에 기인
- ▶ 2017년 연간 6.8%의 경제성장률 달성 가능,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
- ▶ 추가 상승 모멘텀 약화로 중화권증시 약세, 단기조정 예상되나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

3분기 경제성장률 6.8%,  
2분기 대비 소폭 둔화,  
고정자산투자 둔화 뚜렷

### ■ 중국 3Q GDP 성장률 6.8% 기록, 올해 첫번째 둔화 추세

중국 3분기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2분기의 6.9%를 고점으로 소폭 둔화됐으나 작년의 연간 성장률인 6.7%보다 높았다. 분기별(QoQ) 성장률도 1.7%로 2분기의 1.8%에서 소폭 둔화됐다.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둔화의 악영향이 가장 컸다. 고정자산투자의 3분기 누적증가율은 2분기의 8.6%에서 7.5%로 1.1%p 둔화됐다. 반면 소매판매의 누적 증가율은 10.4%로 2분기와 동일했고, 수출은 3분기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2분기보다 둔화됐으나 둔화폭은 크지 않았다.

고정자산투자에서는 인프라투자의 둔화가 뚜렷했다. 3분기까지 인프라투자 증가율은 15.8%로 2분기의 16.8%에서 1%p 둔화되며 세부 항목 중에서 둔화폭이 가장 컸다. 주로 올해 하반기에 실행될 PPP 프로젝트 승인규모가 감소하면서 PPP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됐고, 중립적인 통화정책과 디레버리징 기조에서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 투자는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8월 둔화됐던 산업생산은  
9월에 들어 행정간섭 감소로  
다시 반등

그 외, 8월에 환경조사로 둔화됐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6% 증가하며 컨센서스(6.5%)와 8월의 6.0%에서 개선됐다. 행정간섭 영향이 약화되면서 환경규제 악영향이 컸던 방직, 금속제품 업종의 생산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고부가가치 장비 관련 기업들의 생산은 여전히 양호해 제조업의 구조적 전환이 지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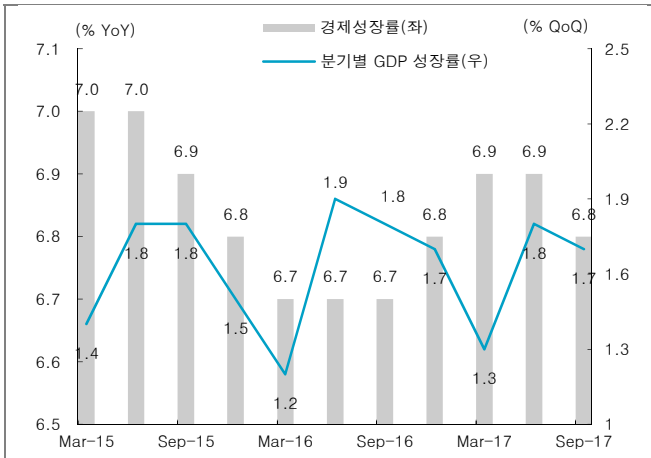
〈표1〉 3분기 GDP 및 주요 경기지표 추이

(단위: % YoY)

	2017.09	2017.08	2017.07	2017.06	2017.03	2016.12
경제성장률	6.8	-	-	6.9	6.9	6.8
수출(누적)	7.7	7.6	8.3	8.5	8.2	-7.7
수입(누적)	17.2	16.9	17.6	18.9	24.0	-5.5
소매판매(누적)	10.4	10.4	10.4	10.4	10.0	10.4
고정자산투자(누적)	7.5	7.8	8.3	8.6	9.2	8.1
부동산투자(누적)	8.1	7.9	7.9	8.5	9.1	6.9
민간투자(누적)	6.0	6.4	6.9	7.2	7.7	3.2
산업생산	6.6	6.0	6.4	7.6	7.6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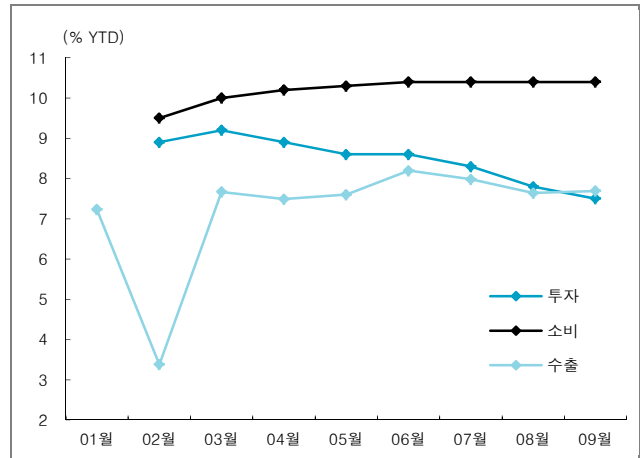
자료: 통계국, 한국투자증권

[그림 1]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 컨센서스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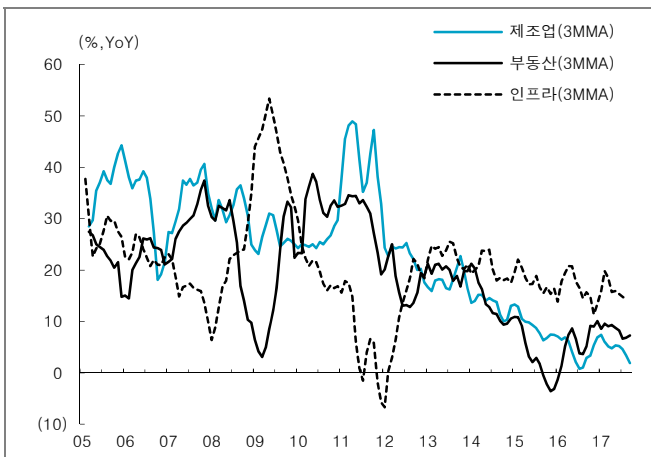
자료: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연초대비 투자 증가율 둔화, 소비와 수출은 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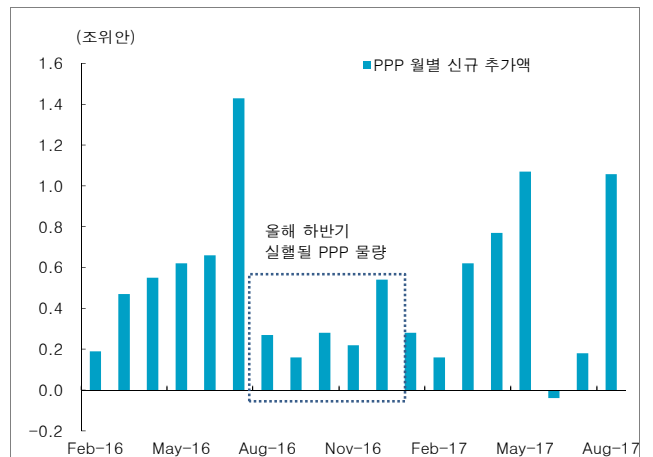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 증가율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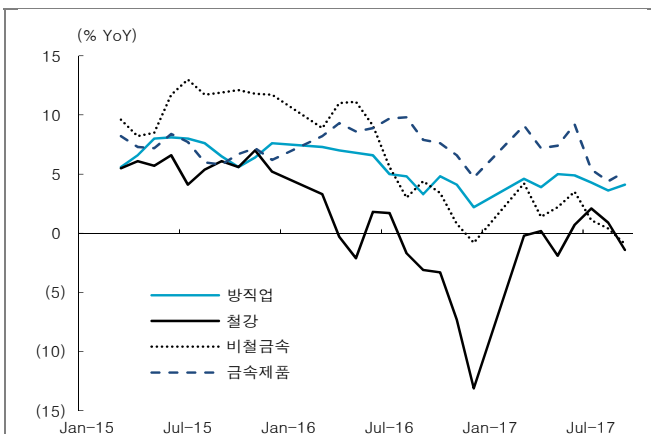
주: 3개월 월별 증가율 이동평균  
자료: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4] 하반기 실행될 PPP 승인규모 감소, 영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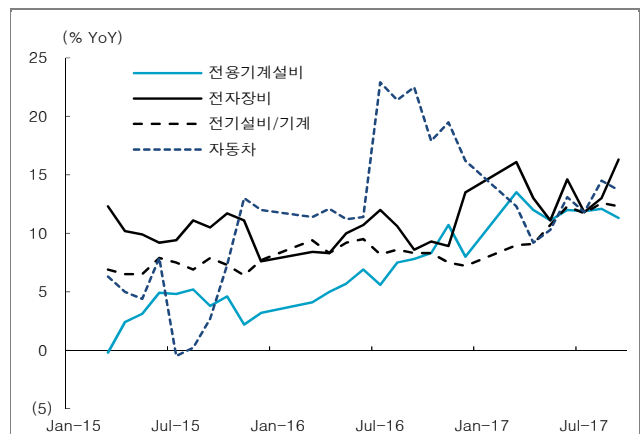
자료: 재정부, 한국투자증권

[그림 5] 환경규제로 8월 둔화됐던 방직업과 금속제품 생산 다시 증가, 철강과 비철금속은 추가 둔화



주: 3개월 월별 증가율 이동평균  
자료: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6]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산업생산:견조한 흐름 지속



자료: 재정부, 한국투자증권

## ■ 2017년 연간 경제성장률 6.8% 달성 가능성 높아

4분기 경기 둔화 지속될 것  
이나, 소비 개선에 둔화폭  
크지 않을 전망

3분기에 이어 중국 경기는 4분기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이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4분기가 제조업 비수기인데다, 환경규제 강화로 허베이성에서 철강기업들의 가동률을 50%로 제한하면서 산업생산 등 지표들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추가로 강화된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9월 부동산 판매량이 처음으로 전년동월 대비 1.5% 감소해 향후 수요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 둔화 시기에 많이 사용하는 재정정책도 현재 추가 집행 여력이 약 25%만 남아 있어 4분기에는 예상을 상회할 만큼의 재정지출 확대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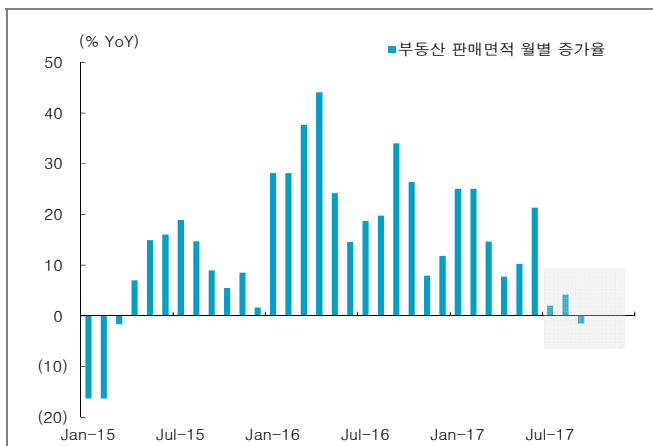
다만 4분기 소비지표가 개선되면서 고정자산투자의 둔화를 일부 상쇄할 전망이다. 중국인들의 가처분소득이 2016년 3분기를 저점으로 개선되고 있고, 자동차 취득세 할인 혜택도 내년에 종료되어 선구매 수요 증가로 판매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IT 선두기업인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11월 11일 광군절(光棍节) 온라인 쇼핑 축제가 예정된 것도 지표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간 6.8%의 경제성장률  
달성 가능

결론적으로 4분기 중국 경기는 고정자산투자의 둔화를 소비지표 개선이 일부 상쇄하며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4분기 경제성장률이 3분기보다 둔화된 6.7%를 달성하더라도 연간 6.8%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가능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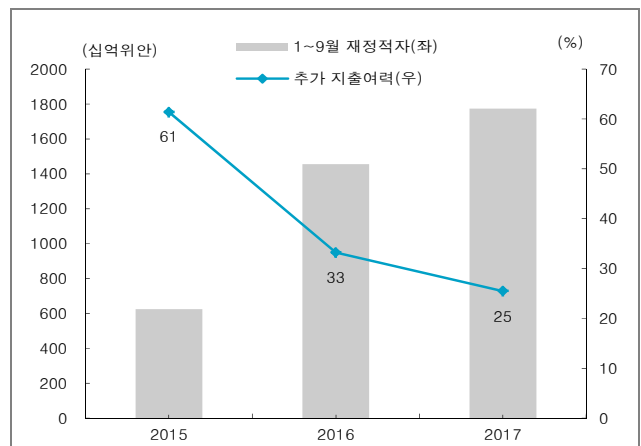
해외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올해와 내년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 지표가 발표된 당일 골드만삭스는 2018년의 중국 경제성장률을 6.3%에서 6.5%로 상향 조정했다.

[그림 7] 9월 중국 부동산 판매면적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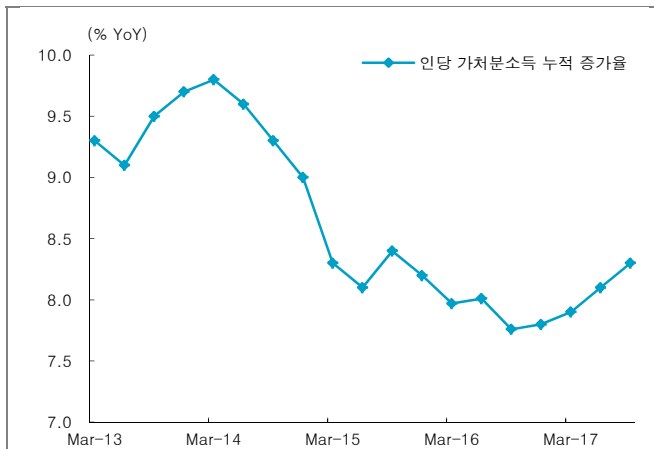
자료: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올해 4분기 추가 재정지출 여력 크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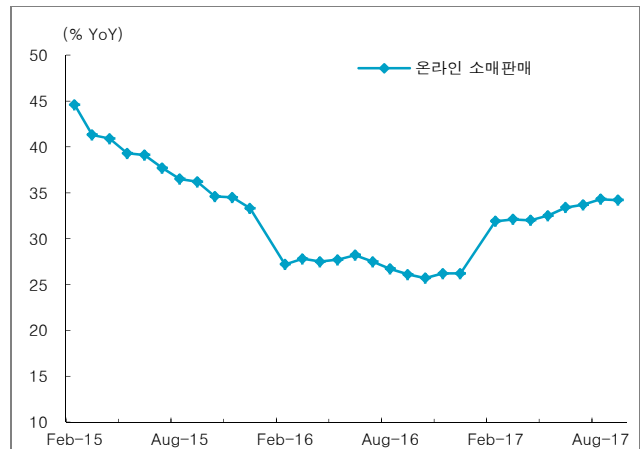
자료:재정부,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중국 인당 가처분소득 누적 증가율 꾸준히 개선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중국의 온라인 소매판매 증가율 개선세 지속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표 2> 중국 연간 GDP 성장률에 대한 글로벌 금융기관 전망치

전망치 제공사	2017년		2018년	
	연초	10월	연초	10월
Goldman Sachs Group	6.5	6.9	6.3	6.5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6.6	6.6	6.6	6.4
Barclays	6.3	6.8	6.1	6.4
JPMorgan Chase	6.5	6.8	6.2	6.4
Nomura Securities	6.5	6.8	6.2	6.2
Credit Suisse Group	6.8	6.8	6.8	6.5
Morgan Stanley	6.4	6.6	6.2	6.4
UBS	6.4	6.8	6.0	6.4
Deutsche Bank	6.5	6.7	6.0	6.3
평균	6.5	6.8	6.3	6.4

주: 10월 20일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중립적 통화정책 유지,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질적 성장 강조,  
향후 정책방향에 큰 변화  
없을 전망

비록 3분기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됐고 4분기에도 둔화 흐름이 이어갈 것이나, 연간 6.8%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해지면서 정부의 경기부양 필요성이 약화됐다. 따라서 중국의 통화정책도 여전히 중립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10월 18일에 열린 19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향후 중국은 질적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형성장보다는 개혁과 분배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정책방향이 현재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0년 소강사회 목표 실현을 위해 6%를 밑도는 성장을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긴축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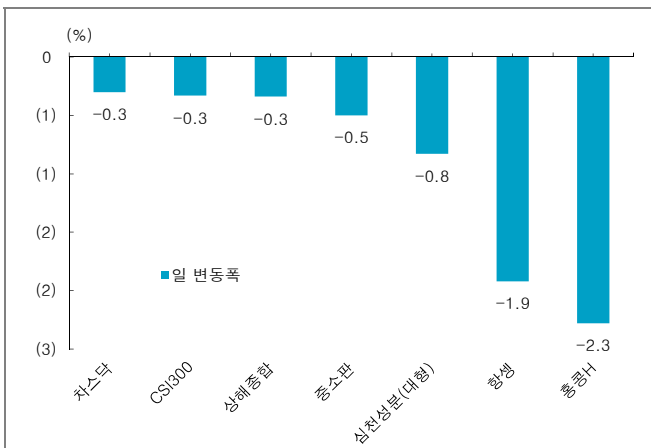
## ■ 중국 주식시장의 단기 조정, 내년을 위한 매수 기회로 활용

추가 모멘텀 상승 부재에  
중화권 증시 급락

3분기 경제성장률과 실물경기지표들이 발표된 이후 중화권 주식시장은 약세 흐름을 보였다. 본토 주식시장에서는 음식료, 헬스케어 등 경기방어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이 일제히 하락했으며, 홍콩 주식시장에서도 장 마감 직전에 자동차, 은행, 보험 등 모든 블루칩들이 일제히 급락하며 홍콩H지수가 2.3% 급락한 11,357p로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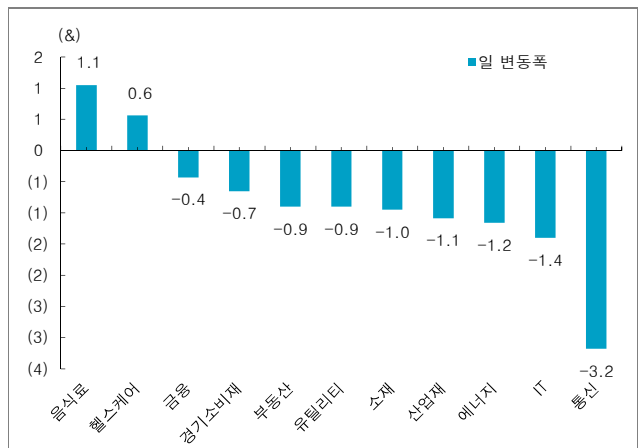
안정적인 경기지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인 이유로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19차 당대회가 개막되고 3분기 경제지표도 컨센서스와 일치하게 발표되며 기존 호재들이 시장에 반영된 가운데 향후 경기 둔화, 규제 조치 발표 등 정책 불확실성 우려들이 확산됐다. 특히 금일 중국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 담당자들이 향후 금융 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 리스크를 줄일 것이고 환율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점들이 모두 차익실현의 빌미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림 11] 지표 발표 후 홍콩 대표지수 급락



자료: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본토 증시에서 음식료, 제약 업종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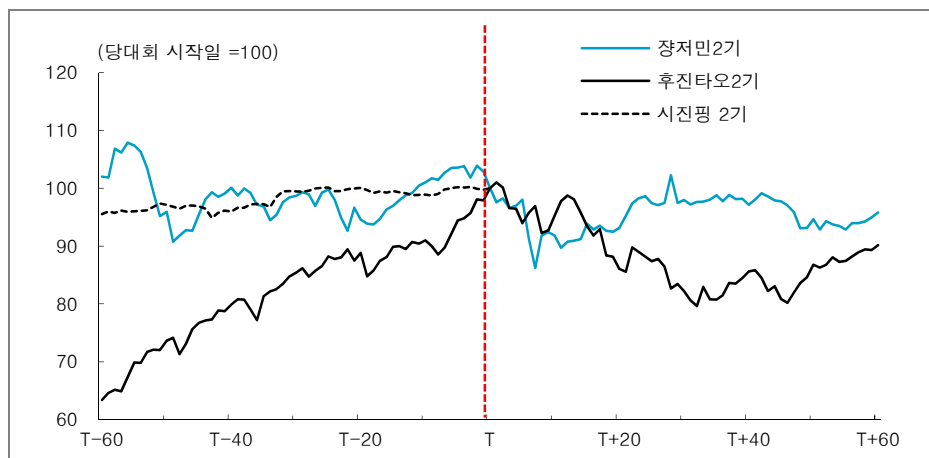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 예상  
되나, 과도한 조정폭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

단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은 조정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 각 지도부 2기의 당대회 전후 주가 흐름도 대체적으로 1중전회의 직전에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회의가 끝나면 차익매물이 출회했다. 올해에도 당대회를 앞두고 정부의 시장 안정화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부분이 있어 당대회 이후 소폭의 숨고르기 장세를 직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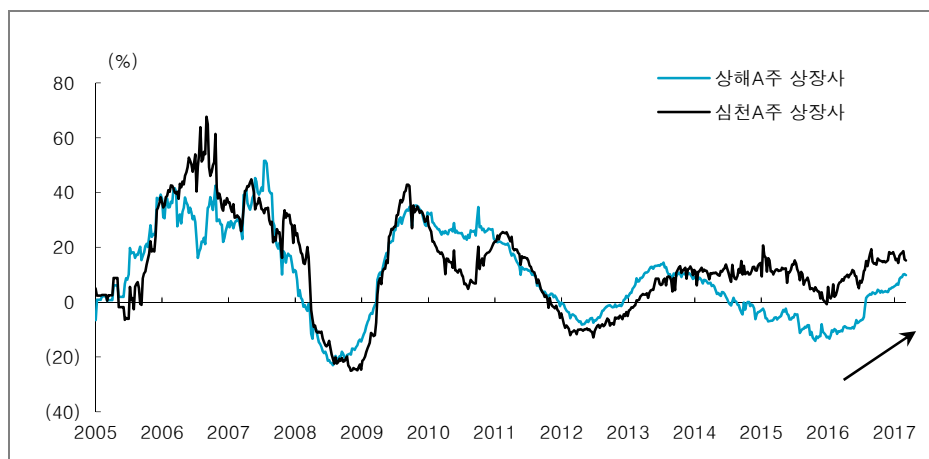
그러나 내년 안정적인 경기 흐름 속에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 지속, A주의 MSCI 편입에 따른 수급 개선,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등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중국 주식시장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4분기의 단기 조정을 내년을 위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구조개혁 가속화 속에서 여전히 대형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CSI300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선두기업에 투자하는 중국펀드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그림 13] 장저민, 후진타오, 시진핑 2기 지도부 결성 당대회 전후 주가 추이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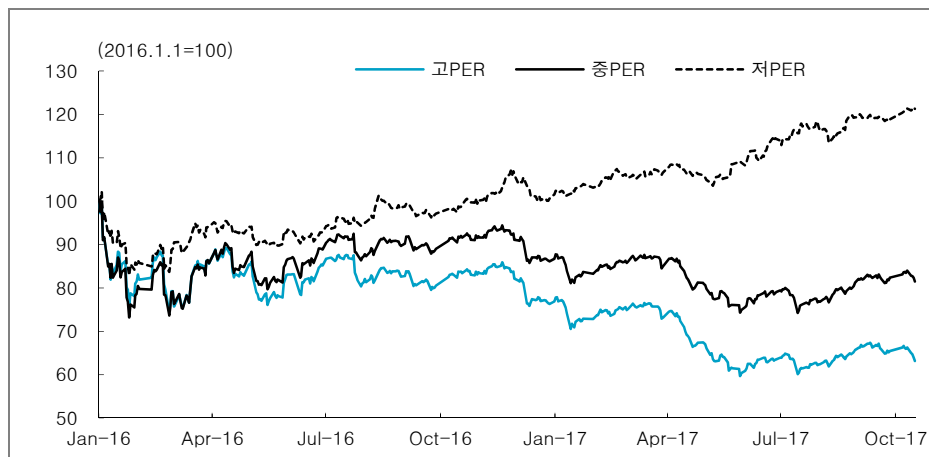
[그림 14] 중국 a주 상장기업들의 12개월 예상 주당순이익 증가율 개선



주: 10월 15일 기준

자료: IBES, 한국투자증권

[그림 15] 2016년 구조개혁 이후부터 저평가 블루칩의 강세 흐름 지속



자료: Wind,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10월 통화정책회의: 0.25%p 금리인상 소수의견

- ▶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의 0.25%p 금리인상 주장으로 3개월 내외 기준금리 인상 주목
- ▶ 한국은행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p 상향하며 3분기 연속 전망상향
- ▶ 채권금리 균형수준 도달 및 장기영역 금리역전(-) 등으로 추가 채권금리 상승여력 제한

### 10월 통화정책 평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그러나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이 0.25%p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함에 따라 2016년 6월 이후 지속된 만장일치 금리동결 기조가 처음으로 변화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의 분기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2.8→3.0%로 0.2%p 추가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9→2.0%로 0.1%p 상향했다. 내년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종전 전망을 유지한 가운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9→1.8%로 0.1%p 하향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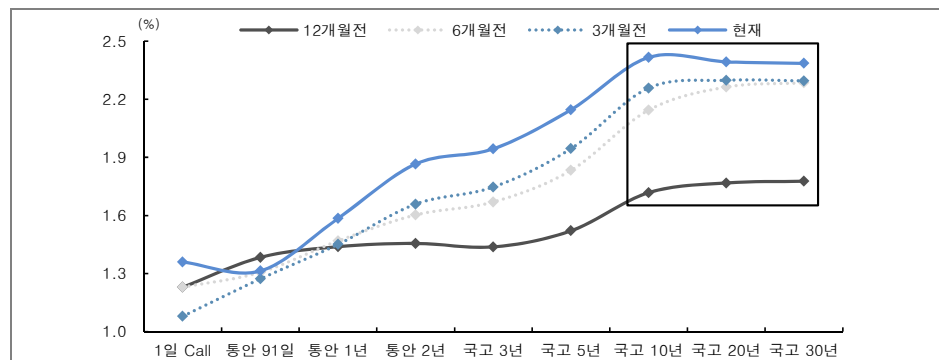
### 향후 통화정책 전망

올해 하반기 들어 국내 통화정책에서도 금리인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여건에서는 1) 경기 측면에서 올해 하반기에 분기 성장률을 기준으로 3% 성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물가 측면은 하반기를 기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인 2.0% 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3) 대내외 금리차 측면에서는 연말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한국-미국 수익률곡선의 역전(-)이 우려된다. 또한 과거 금리인상 소수의견 당시를 감안할 때 3개월 내외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겠다.

### 채권시장 영향 및 전략

채권금리 균형수준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금리상승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채권시장은 올해 국고채 3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1.60~1.80% 범위에서 횡보국면을 이어갔으나, 하반기 들어 채권금리가 상승세를 재개하며 변동범위 상단을 상향 돌파했다. 이후 9월 FOMC를 기점으로 채권금리 상승속도가 가팔라지며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시에는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0% 수준에 도달했다. 현재 채권금리는 연말 균형금리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상승 여력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림 1] 만기 10년 초과영역에서 장단기 금리역전(-)상황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 ■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및 기자간담회 Q&A

〈표 1〉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요약

구분	8월 발표 내용	10월 발표 내용
기준금리 결정	·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1.25%)	· 기준금리 동결(1.25%)—이일형위원 기준금리 0.25%인상 소수의견
세계경제 진단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 ·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을 것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 ·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을 것
국내경제 진단	· 투자가 주춤하였으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 · 고용 면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완만한 개선세 ·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7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 소비는 고용개선 및 추경집행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며, 설비투자는 IT부문 투자 확대 등으로 전망 수준을 상회할 것 · 수출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서비스수출 둔화로, 건설투자는 부동산시장 안정 등으로 전망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완만하게 확대되면서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 · 고용 면에서는 일시적 요인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완만한 개선세를 지속 · 국내경제는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GDP 성장률은 금년에는 7월 전망치(2.8%)를 상회하고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내수도 재정지출 확대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임
물가 진단	·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지난해 전기료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대 초반으로 오름세가 확대 ·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반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7월 전망 수준(1.9%)을 보일 것으로 전망.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나타낼 것 · 주택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오름세가 둔화	·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2%대의 오름세를 지속 ·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반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전기료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의 소멸 등으로 당분간 1%대 후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점차 목표수준에 근접 ·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을 어거가다 내년 이후 완만하게 상승
금융시장 방향	·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 ·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주가, 환율 및 장기시장금리가 상당폭 등락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 ·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	·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장기시장금리는 상승하고 환율은 등락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상승. ·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 주택가격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
향후 통화정책방향	·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게됨이 통화정책의 목표 ·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 국내경제는 건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 ·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	·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게됨이 통화정책의 목표 ·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 국내경제는 건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 ·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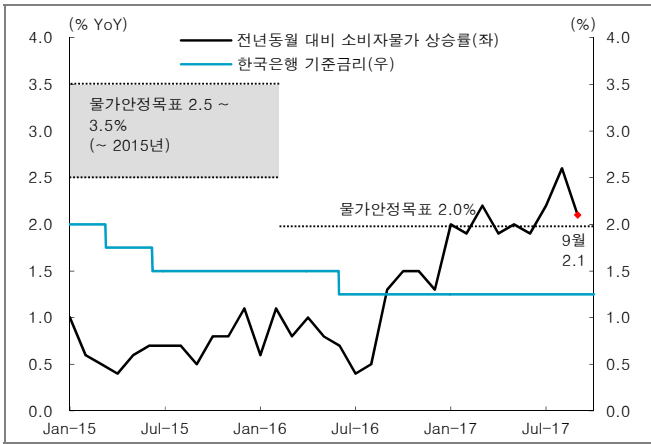
〈표 2〉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Q&A 요약

기자질문	한국은행 총재 답변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했다. 금리 인상 여건에 부합되는 경제여건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나?	금년도 성장률을 3.0%로 높였고 물가 상승률은 목표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보면 수개월 전에 얘기했듯이 금리 완화의 정도를 줄어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성장과 물가 흐름이 계속 기조적일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필요
8월에 한미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위험이 줄었다고 평가.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외인 자금의 유출에 대한 견해는?	미국도 시장의 예상대로라면 12월 중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내외 금리차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외인 자금의 유출입은 내외금리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제 시장에서의 자금상황 및 각국의 경기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정
단기물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데, 한은의 금리인상이 반영된것이라는 의견이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와 부합되나?	시장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외에도 경기나 물가 전망, 내외금리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 물론 최근의 시장 금리 움직임에는 국내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일부 반영됐다고 파악. 그렇지만 현재 시장금리가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와 부합되는지 이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기재부에서 말하는 3%성장인 올해와 내년도에 유지된다고 보는지?	국내경제는 올해와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기재부에서 밝힌 3%성장경로 전망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경로를 보인다고 해석한다면 차이는 없다고 생각
외인 증권자금이 최근 유출되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8월 이후 북한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외인 자금이 유출된 것은 사실. 그렇지만 10월 들어서는 큰 폭으로 유입되어 안정세를 보임. 하지만 지정학적리스크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의 전개상황에 유의해서 외인 투자자들의 흐름에 촉각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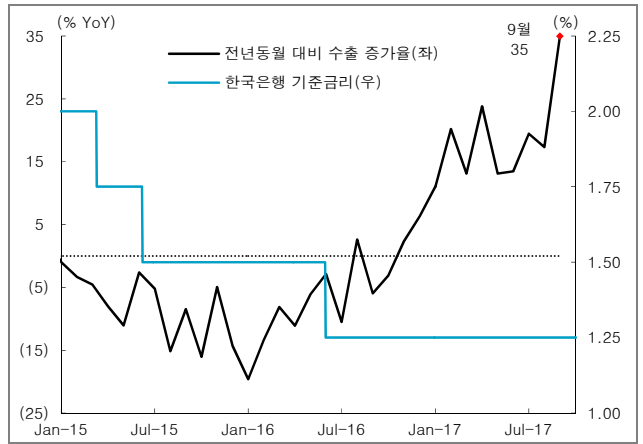
## ■ 한국경제 vs. 통화정책

[그림 2]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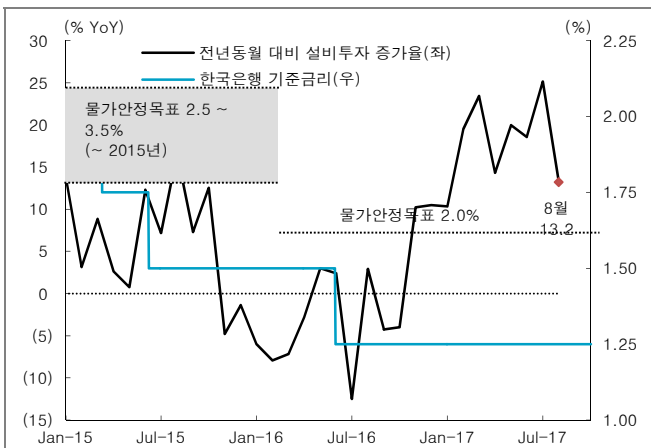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3]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수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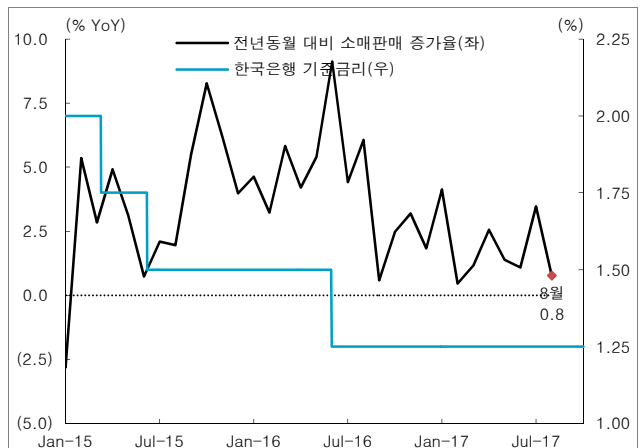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4]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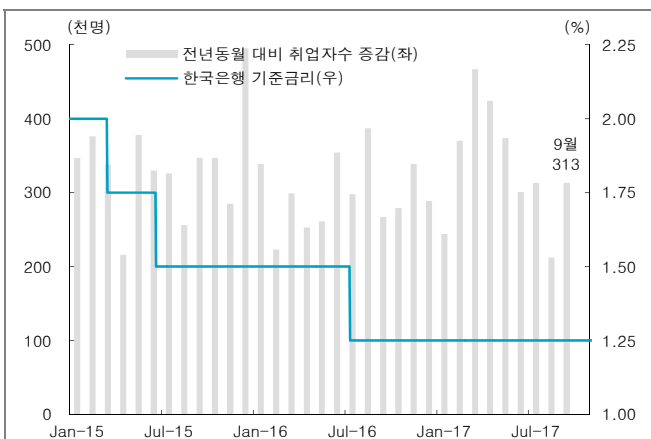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5]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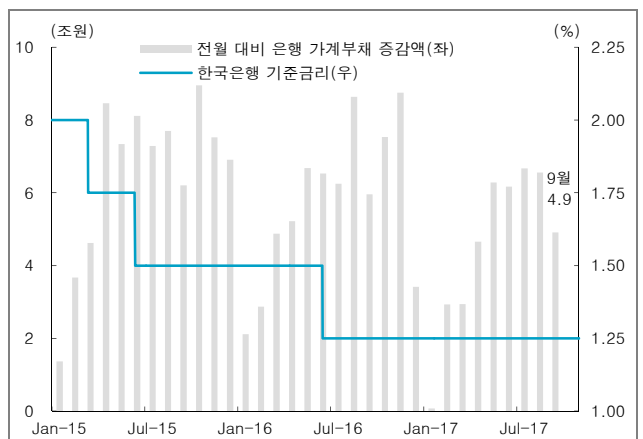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6]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취업자 증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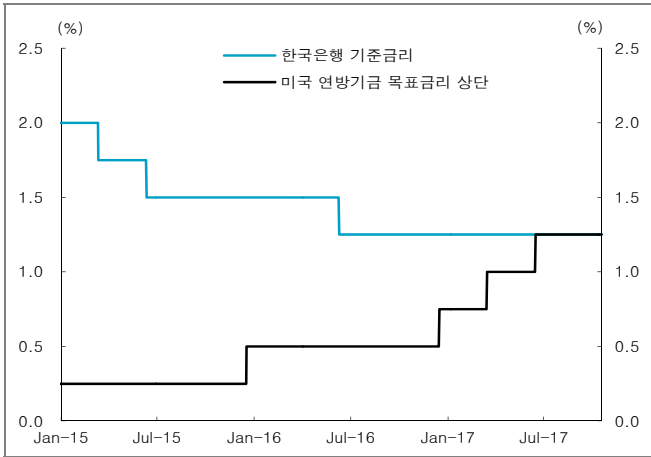
[그림 7]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은행 가계부채 증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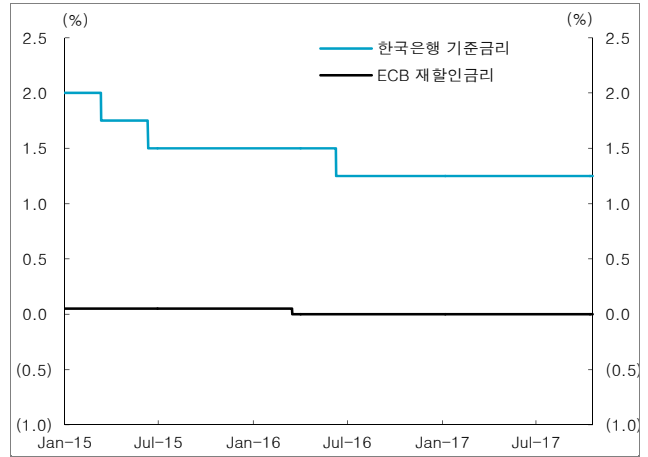
■ 금융시장 vs. 통화정책

[그림 8]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연준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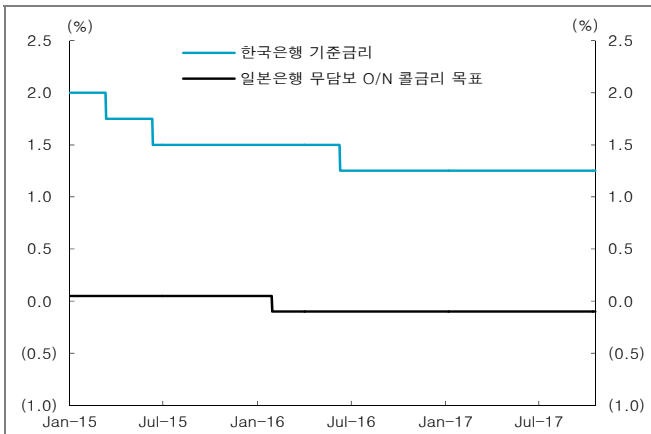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9]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ECB 정책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일본은행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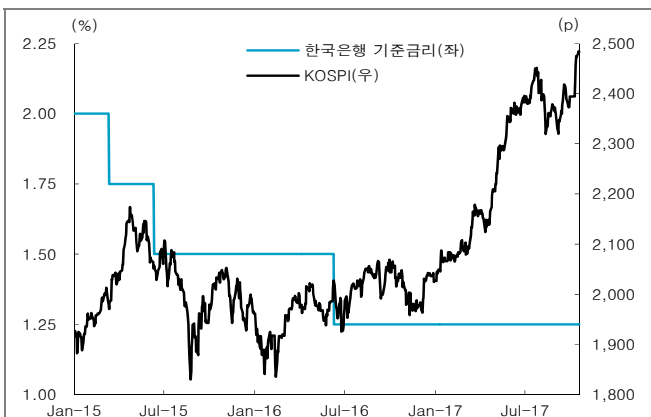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국고채 3년 금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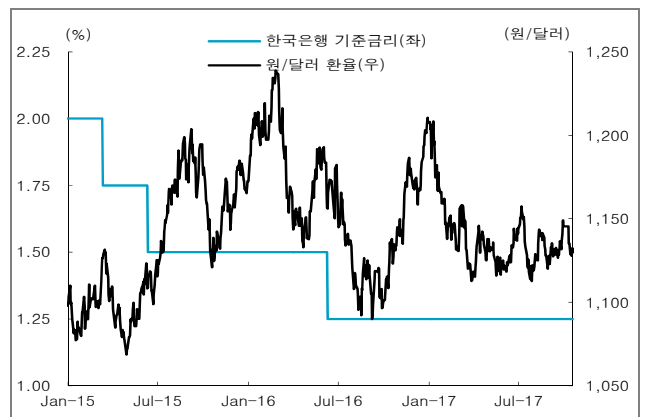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KOSPI 추이



자료: 한국은행,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 ■ 한국은행 경제전망 현황

〈표 3〉 한국은행 7월 경제전망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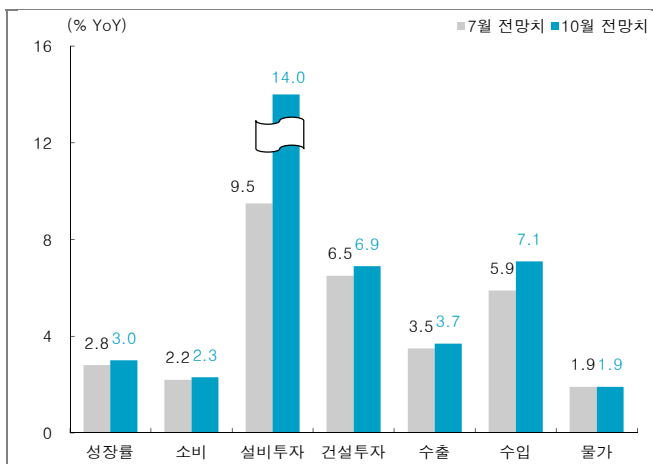
(단위: % YoY, 십억달러)

구분	2017F				2018F			
	1H	2H	연간	KIS	1H	2H	연간	KIS
GDP 성장률	2.8	3.2	3.0	2.9	2.9	3.0	2.9	2.7
소비	2.1	2.5	2.3	2.4	2.7	2.6	2.6	2.6
설비투자	15.9	12.1	14.0	4.2	2.3	3.4	2.8	5.2
건설투자	9.4	4.9	6.9	-	0.3	0.1	0.2	-
수출	4.2	3.3	3.7	14.3	2.4	4.6	3.5	4.2
수입	9.3	5.0	7.1	15.9	2.1	4.8	3.4	7.2
소비자물가	2.0	1.8	1.9	2.2	1.8	2.0	1.9	2.1
경상수지	35.5	34.5	70.0	85.5	32.5	35.5	68.0	77.9

주: KIS = 당사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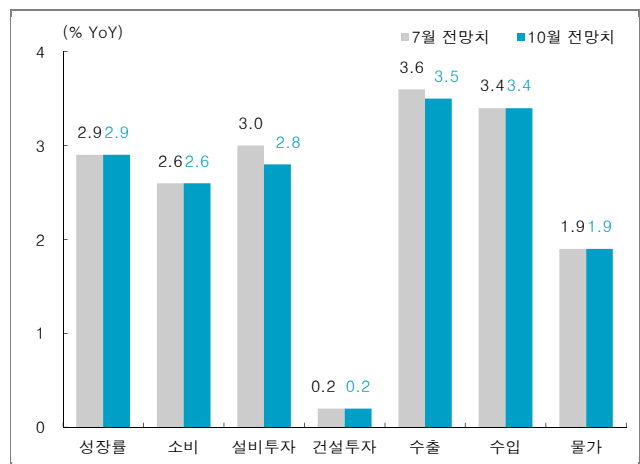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한국은행의 2017년 경제전망치 변동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15]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전망치 변동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총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상승 모멘텀 약화 우려에 중화권 증시 약세

- ▶ 상해종합지수는 0.3% 하락, 감독 당국 담당자들의 금융 규제 강화 발언에 투자심리 약화
- ▶ 홍콩H지수는 2.3% 하락, 정책당국의 시장 비 친화적인 발언 속에 차익실현 매물 대거 출회

상해종합지수 0.3% 하락,  
철강, 석탄, 증권, 보험,  
은행, 조선 등의 업종 약세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0.3% 하락한 3,370p로 마감했다. 약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하락 폭이 확대됐다. 거래대금은 1,879억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소폭 감소했다. 금일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GDP)이 6.8% YoY를 기록하며 컨센서스에 부합했으나 저우샤오환 인민은행장이 직전에 말했던 하반기 7% 성장률 달성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감이 확산됐다. 또한 19차 당대회에서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감독 당국 담당자들이 향후 금융 리스크 통제와 규제 강화 발언을 하면서 투자심리가 약화됐다.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차익실현 매물들이 일제히 출회했다. 경기 둔화 우려로 시크리컬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며 지수 약세를 견인했다. 반면 제약, 음식료 등 경기방어주들은 상승 마감했다. 성장주 약세 속에 차스삭지수도 0.3% 하락한 1,863p로 마감했고, 외국인들은 시장 약세 흐름 속에 후구통을 통해 상해주식을 순매도했고, 선구통을 통해 심천주식은 순매수했다.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2.3% 급락,  
자동차, 보험, 은행, 부동산,  
에너지 등의 업종 약세

홍콩H지수는 2.3% 급락한 11,357p로 마감했다. 미국 증시의 상승에 동조하며 강보합세로 출발한 증시는 마감직전 하락폭이 확대됐다. 본토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소폭 둔화된 것에 이어 정책당국의 시장 비 친화적인 발언을 한 것이 투자심리를 약화시켰다. 9월부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비야디(1211.HK)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주와 보험, 은행 등의 금융주들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며 막판에 급락했다. 한편 항셱지수도 자동차주와 IT주의 약세 속에 1.9% 하락한 28,159p로 마감했다.

####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분	10/19 (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370.17	-0.34	-0.47	0.40	8.59
심천종합	1,983.72	-0.82	-1.96	-0.60	0.74
차스삭	1,862.61	-0.30	-1.97	-0.94	-5.07
홍콩H	11,357.45	-2.28	-1.24	2.08	20.89
Shibor 7일물 금리(% , %p)	2.84	-0.22	-0.39	-0.96	11.70
Shibor 1개월 금리(% , %p)	4.03	-0.14	-0.51	1.18	21.86
중국국채 3년물(% , %p)	3.71	-0.40	1.02	2.73	22.44
위안/달러 고시환율	6.6093	0.15	0.34	0.86	-4.72
역내 위안/달러	6.6233	0.06	-0.54	-0.60	4.86
역외 위안/달러	6.6263	-0.08	-0.72	-0.64	5.28

주: 19일 오후 6시 6분 기준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이를 연속 하락세

- 뉴욕증시는 IBM 등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2만3,000선을 돌파하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사모, 기타법인을 제외한 모든 매매주체가 순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주도, 이를 연속 하락하며 2,480P선 아래로 밀려남. 코스닥은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금융투자가 닷새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으나 여타 기관과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세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퀄컴과 차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소식에 LG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4분기 실적 회복 전망에 한화테크윈이 12% 가까운 초강세를 보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거래를 재개한 한국항공우주가 실적 정상화 기대감에 초강세를 보였으며, 인도의 카프로락탐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카프로가 강세를 보임. 또한, 세계 최대 항공우주기업인 보잉과 치누크 헬기 성능개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대한항공, 한진칼 등이 5% 이상 급등, 티웨이홀딩스,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주들도 동반 상승했으며, 최근 약세를 보였던 2차전지 등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3분기 실적 기대감 등으로 강세를 보임. 반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셀트리온이 차익실현 매물로 8거래일 만에 급락했으며, 국정감사에서 모바일게임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며 엔씨소프트 등 일부 게임주가 하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b>LG전자(066570)</b> <b>▶96,500 (+6.75%)</b>	<b>퀄컴과의 협약 소식에 신고가 경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통신 반도체 분야의 대표기업인 퀄컴과 '차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자율주행차 부품시장 선점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li> <li>- 차량용 5G 통신기술은 LTE 대비 약 4~5배 빠른 초고속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고 통신 지연시간도 10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커넥티드카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li> </ul>
<b>한국항공우주(047810)</b> <b>▶56,200 (+17.82%)</b>	<b>거래 재개 첫날 초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장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거래재개 첫날 초강세</li> <li>- 현재 분석회계와 관련한 금감원 감리가 진행 중이고, 수리온 납품충단에 따른 실적 악화 등의 리스크가 남아 있으나, 정부의 항공우주산업 육성 의지와 대규모 수출 모멘텀 등에 따른 실적 정상화 기대</li> </ul>
<b>카프로(006380)</b> <b>▶7,800 (+11.75%)</b>	<b>인도 카프로락탐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초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의류, 자동차 시장 성장으로 나일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카프로락탐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 한국의 락탐 독점생산 업체인 동사의 수혜 기대감에 초강세</li> <li>- 아울러, 3분기는 물론 4분기도 실적 호조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li> </ul>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b>로엔(016170)</b> <b>▶97,200 (+5.6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분기 실적 호조 및 음성 UI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li> </ul>
<b>한미약품(128940)</b> <b>▶515,000 (+7.2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제약기업 스펙트럼에 수출한 내성표적 항암신약 '포지오티닙'이 난치성 폐암 치료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단 소식에 신고가 경신</li> </ul>

## 단기 유망종목: 한솔케미칼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한솔케미칼 (014680)	72,600 (+1.1)	71,80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용 과산화수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3분기 매출액은 1분기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li> <li>국내 공장이 100%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부터 신규 설비가 가동되며 매출액 증가 전망</li> <li>금년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DPT(Double Patterning Tech) 소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테이팩스의 전자재료 사업도 신제품 공급으로 성장폭이 확대될 전망</li> </ul>
포스코강판 (058430)	30,050 (+1.5)	29,60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P(World Premium) 제품 확대를 통한 제품믹스 개선 전망</li> <li>3분기 중국 컬러강판 가격이 크게 상승해 하반기 실적 개선 예상</li> <li>2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하고 높은 배당 성향으로 투자 매력 상존</li> </ul>
신성델타테크 (065350)	4,140 (-2.7)	4,255 (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방업체인 LG전자의 건조기 판매 급증과 더불어 세탁기, 청소기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HA사업부의 성장 모멘텀 지속 전망</li> <li>전기차 시장 확대에 배터리 부품 및 ESS부품 매출의 구조적 증가 예상</li> <li>구조조정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반영이 종료되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가파른 개선세를 보일 전망</li> </ul>
아이콘트롤스 (039570)	25,600 (-5.2)	27,000 (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파트 입주량 증가에 따른 스마트홈 사업부 매출 증가 기대</li> <li>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사업부의 사업성 부각 전망</li> <li>안정적인 캡티브마켓, 계열사 지분가치, 스마트홈 및 지능형 빌딩 산업의 성장성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li> <li>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li> </ul>
이엘피 (063760)	23,050 (-16.0)	27,450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진율이 높은 중국 매출 비중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50%까지 확대되며 수익성 향상 전망</li> <li>본사 이전을 통해 2019년까지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무차입 경영을 추구하여 재무건전성 우수</li> <li>2017년 예상 PER 7.6배로 디스플레이 장비주 평균 PER 10.2배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li> </ul>
코엘패션 (033290)	5,300 (+27.3)	4,165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기반의 SPA 브랜드 전략을 통해 원가 경쟁력 확보와 추가 라이선스 브랜드 확대 가능</li> <li>신규 런칭한 브랜드들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고 기존 언더웨어 및 스포츠웨어 사업부도 견조한 성장 전망</li> <li>'17년 예상 PER 9.2배로 해외진출 및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한 성장 가능성 대비 저평가 구간</li> </ul>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2017년 8월 8일 현재 이엘피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송원산업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송원산업 (004430)	19,700 (-0.8)	19,850 (10/18)	739	70	44	1,847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내 폴리머 수요 증가와 국내 윤활유 첨가제 Capa 증설로 비수기인 4분기 호실적 달성 전망</li> <li>- 올해 4분기~내년 1분기 사이 신규 크래커 가동에 폴리머 안정제 수요가 증가할 전망</li> <li>- 수년간 이어질 미국 석유화학 증설 랠리의 초입 단계로 향후 구조적 성장 지속 전망</li> </ul>				
이엠텍 (091120)	15,150 (+7.4)	14,100 (7/20)	256	21	15	1,060	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li> <li>-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li> </ul>				
KG ETS (151860)	4,285 (+1.5)	4,220 (7/5)	125	20	15	428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팀 판가와 동 가격이 동반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li> <li>- 국내 주요 FPCB업체들의 증설로 인한 전자소재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li> <li>-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지정 폐기물 비중 상승으로 환경 사업부의 수혜 전망</li> </ul>				
SK (034730)	296,500 (+5.9)	280,000 (5/29)	92,094	6,175	6,025	39,396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주주환원정책과 재벌기업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상향 추세 지속 전망</li> <li>- 실트론 인수를 통한 자회사 간 시너지와 탈석탄 발전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li> </ul>				
풍산 (103140)	54,600 (+33.8)	40,800 (5/23)	2,970	279	190	6,766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풍산 주가의 저평가 요인인 Roll margin(가공이익)이 과거 3~4%에서 올해 1분기 7%까지 상승하며 주가 할인 요인 제거</li> <li>- 현재 주가는 2017년 예상 실적 기준 PER 6.0배, PBR 0.8배(ROE 14.4%)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li> </ul>				
오텍 (067170)	9,250 (-18.5)	11,350 (4/6)	828	37	17	1,288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대 최대치인 전국 입주 아파트 가구 수와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기능성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수요 증가 전망</li> <li>- 2018년 페럴림픽 참가 선수를 위한 장애인용 버스 및 택시 부족으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 가능성</li> <li>- 작년 4월 인수한 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오텍캐리어 통합빌딩관리 서비스(BIS)와 시너지 효과 기대</li> </ul>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항공: 3Q17 Preview - 항공주 다시 사야 하는 시점

### ■ 항공업종 3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하회 예상

3분기 항공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인바운드 여객수요 부진, 유가상승 및 전년 베이스 부담에 따라 전년대비 7% 감소할 전망이다. 사드관련 중국정부의 한한령 규제가 장기화되는 한편 대북갈등으로 인한 불안감 조성으로 7~8월 외국인 입국자수는 37% 줄었다. 이에 따라 인바운드 여객비중이 40%에 달하는 양대 국적사(FSC)의 국제선 평균운임은 3분기 5%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유가는 3분기 평균 배럴당 64달러로 전년대비 17% 상승해 3사의 합산 유류비는 11% 증가했을 것이다. 아웃바운드 여객 중심으로 외형성장이 이어지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FSC는 화물부문의 호실적이 국제선여객 부진을 일부 만회할 것이다.

### ■ 3분기 실적우려는 항공업종 주가에 선반영

7월 이후 항공 3사의 합산 시총은 24% 감소했다. 3분기는 여름 휴가 및 방학시즌으로 항공여객시장의 성수기이나, 반대로 2분기 리레이팅을 주도했던 비수기 기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편 작년 9월이었던 추석연휴가 올해는 4분기에 반영된다. 상반기 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는 가운데 성수기효과에 대한 눈높이는 낮추고 4분기 실적모멘텀을 기다려야 했다. 이에 따라 항공 3사의 합산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분기 실적발표 이후 8% 하향조정된 반면 4분기 컨센서스는 3% 상향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2018F PBR 0.9배로 낮아졌고, 실적우려가 제한적인 제주항공도 업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투자심리와 맞물려 최근 한달간 주가가 10% 하락했다.

### ■ 4분기 실적모멘텀 부각되는 시기, 과도한 주가조정은 투자 기회

8월 일본 입국자수가 5개월만에 증가했고 중국노선에 대한 공급감축 역시 일단락돼 인바운드 여객부진 영향은 피크를 지났다. 특히 추석 황금연휴에 따른 수요 분산이 우려되던 9월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합산 국제선 여객수는 전년동월대비 11.4% 늘었다.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추석효과에 대한 4분기 실적 기대감을 높이는 결과다. 따라서 최근 항공업종에 대한 주가하락은 과도해 보이며 한진과 금호아시아나 그룹 노이즈가 함께 반영됐을 개연성이 높다.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항공업종에 대한 투자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추석 황금연휴 수혜와 비수기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4분기 실적모멘텀에 투자할 시점이다. 4분기 항공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6% 증가할 전망이다. 항공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단기 밸류에이션 매력에 높은 대한항공과 국제선여객의 성장성이 구조적인 제주항공에 대해 '매수' 의견을 추천한다.

### ■ 대한항공: 3분기 실적 부진을 뒤로, 4분기 투자매력 회복

대한항공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4% 감소한 4,350억원으로 컨센서스를 4% 하회할 전망이다. 전년동기 베이스 부담이 예상보다 컸으며 인바운드 여객부진에 따른 국제선 평균운임 하락이 가팔랐기 때문이다. 다만 주가는 3분기 이후 24% 하락하며 이러한 우려를 선반영했다. 4분기는 추석 황금연휴 및 화물 성수기효과로 영업이익 증가가 재개된다. 또한 연간 순이익 기준으로 5년만에 흑자전환이 가능하다. 2018년 화물부문의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올해 부진했던 국제선여객 본업의 기저효과가 더 긍정적이다. 특히 대한항공의 밸류에이션 매력에 주목한다. 현재 주가는 2018F PER 0.9배에 못 미치고 한진해운 지원 부담에 따른 유상증자 우려가 존재했던 연초대비로도 17% 반등에 불과하다. 올해 재무구조 개선, 장거리노선 운영효율성 제고 등 펀더멘털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주가는 어김없이 상반기에 피크를 찍고 하반기에 하락하는 상고하저 패턴을 답습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심리는 4분기 현재가 바닥이다. 대한항공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44,000원(2018F PBR 1.4배 적용)을 유지한다.

### ■ 제주항공: 단기와 장기 관점 모두 상대우위 이익증가 부각

제주항공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4.0% 증가한 473억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근거리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힘입어 국제선 유입여객수가 전년대비 37% 늘어 L/F(Load factor, 탑승률)와 평균운임 모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비와 인건비 부담은 높아지는 반면 임차료와 정비비는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매출액 대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실적 우려가 제한적임에도 업황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훼손으로 제주항공의 주가는 최근 한달간 10% 하락했다. 반면 4분기 비수기 기저효과에 따른 이익증가율은 업종 내 가장 클 것이다. 제주항공은 작년 4분기 영업이익 42억원, 영업이익률 2.2%에 불과했다. 또한 근거리노선 중심으로 항공여객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2018년 이익증가 전망 역시 가장 밝다. 제주항공의 국제선 여객점유율은 2016년 5.6%에서 2017년 3분기 7.8%로 업종 내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향후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항공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으로 제주항공의 리레이팅 역시 재개될 것이다. 제주항공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46,000원(2017F PER 15배를 적용)을 유지한다.

### ■ 아시아나항공: 인바운드 여객 부진에 가장 크게 노출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9.7% 감소한 1,217억원을 기록할 것이다. 최근 한달간 13% 낮아진 컨센서스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6년 매출비중이 34%에 달했던 중국과 일본 노선의 인바운드 여객수요 부진으로 국제선 평균운임이 크게 하락했다. 기대했던 여객부문의 성수기 효과는 전년 높은 베이스와 유가상승 영향을 넘지 못 했지만, 화물사업의 매출이 21% 늘며 감익폭을 일부 만회했다. 하반기 이후 32% 하락한 현재 주가는 2018F PBR 0.9배에 불과하다. 컨센서스와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우려는 이미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 업종 내 인바운드 여객 부진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4분기 추석 황금연휴 수혜와 화물 성수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투자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롯데하이마트(071840)

## 매수(유지)

목표가: 95,000원(유지)

종가(10/18): 75,800원

## 3Q17 Preview: 구조적 실적 개선

## ■ 3분기 실적 모멘텀 지속, 유통업에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롯데하이마트의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한 780억원을 예상한다. 3분기 실적은 건조기와 청정기 등 새로운 수요에 따른 구조적 성장기를 맞고 있는 신규 가전이 주도할 전망이다. 특히 건조기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8~9배 이상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에어컨 매출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인다. 베이스가 높았고, 8월 중순 이후 낮아진 기온으로 인해 환경이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7.5% 늘어난 1조 2,060억원을 예상한다. 우월한 소비환경과 달리 유통업종 내 돋보이는 실적이다.

## ■ 신규 가전이 끌고, 옴니채널이 밀고

실적 부진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TV와 냉장고 등의 매출이 상승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TV는 매출 비중이 이미 한 자리 수까지 낮아진 상황이어서 향후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침투율 낮고 마진 높은 건조기 등 신규 가전 매출이 더해지기 때문에 롯데하이마트의 외형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점이 아닌 상품 수요에 따른 성장이어서 손익개선폭도 크다. 또한 온라인채널 확대는 롯데하이마트의 중장기 성장성을 보장한다. 2분기에 이어 3분기 온라인채널 비중은 약 20%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롯데쇼핑의 옴니채널 확대에 따른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의류 및 잡화, 음식료 등을 주로 취급하는 여타 소매채널과 달리 롯데하이마트의 온라인채널은 오프라인채널과 상품마진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성장에 따른 수익성 개선 또한 기대할 수 있다.

##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5,000원 유지

건조기 등 신규 가전의 침투율이 낮아 당분간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며 마진 개선까지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상품군 내 신규 채널 등장에 따른 시장점유율 훼손이 없고, 특히 롯데쇼핑의 옴니채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집중되는 종목이다. 불과 3년 전 1.1%에 불과했던 온라인쇼핑 매출 비중은 2017년 현재 20% 수준까지 높아졌으며 온라인채널 확대에 따른 상품마진 희석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롯데하이마트에 대해 롯데쇼핑과 함께 유통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5,000원을 유지한다.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력이 높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10.2배, 2018F PER 8.9배에 불과하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3,896	160	107	4,515	10.5	213	13.1	9.5	0.8	6.1	0.7
2016A	3,939	175	121	5,144	13.9	227	8.2	6.5	0.5	6.6	1.2
2017F	4,270	224	158	6,699	30.2	278	11.3	8.1	0.9	8.0	0.7
2018F	4,772	282	200	8,485	26.7	339	8.9	6.7	0.8	9.4	0.7
2019F	5,333	315	225	9,549	12.5	373	7.9	6.0	0.7	9.6	0.7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씨엠에스에듀(225330)

매수(유지)

목표가: 12,000원(상향)

종가(10/18): 9,500원

## 3Q17 Preview: 국내 성장 가속화, 커지는 해외 기대감

## ■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소폭 하회 전망

17년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68억원과 1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0.3%와 52.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은 기대치에 부합하겠지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1.9% 하회할 전망이다. 17년 3분기말 직영점수는 30개로 전년동기 대비 3개 늘었다. 직영점 확대로 수강료와 교재 매출이 각각 22.8%와 16.7% 늘어 외형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업이익률은 11%로 전년동기 대비 2.3%p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 ■ 코딩 교육에 진출해 국내 성장 가속화

코딩 교육센터를 열어 국내 성장이 가속될 것이다. 17년 9월 국내 최초로 코딩 교육센터를 서초에 열었다. 중학교는 18년, 초등학교는 19년부터 코딩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다. 수강생 모집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신규 수강생 유입(Q 증가)과 기존 수강생들의 인당 수강료 증가(P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7년 12월에 대치와 목동 그리고 18년 상반기에는 압구정 과 분당에 코딩 교육센터가 추가될 예정이다. 코딩으로 과목을 확대하며 직영점 확대가 가속화 중이다. 16년에는 4개의 직영점이 늘었는데 코딩 교육에 진출하며 2017년, 2018년에 각각 6개의 직영점 증가로 과거 대비 성장세가 빨라질 것이다.

## ■ 고수익성 해외 로열티 매출 발생하기 시작

해외 로열티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17년 8월에 설립한 중국의 두 번째 JV 사업이 11월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초기 판권 매출은 10억원(17년 4분기 5억원, 18년 1분기 5억원 인식 예정)이고 이후 교재당 로열티 매출과 JV 지분법 이익(45% 지분)을 인식할 예정이다. 2017년 11월 북경에 수학학원 1호점이 열릴 예정이다. 기존 중국 JV와 기타 국가와는 달리 사교육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사업 진행이 빠를 것이다. 콘텐츠 OSMU(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로열티 매출 증가는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진다. 중국 내 학원 확대 속도에 따라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 ■ 목표주가 33% 상향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9,000원에서 12,000원(12개월 forward EPS에 목표 PER 16.5배 적용)으로 33.3% 상향한다. 17년과 18년 순이익 추정치를 각각 2.0%와 6.8% 상향했다. 또한 고수익성 해외 로열티 매출이 18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되어 re-rating 가능성이 높아 목표 PER을 14배에서 16.5배로 높였다. 12개월 forward PER은 13.4배다. 국내에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며 교육 업종과 차별점을 두고 있어 프리미엄은 타당하다. 4분기와 1분기가 성수기여서 단기 이익 추세도 양호하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48	9	7	2,118	16.1	11	NM	NM	NM	50.0	-
2016A	59	11	7	1,795	(15.3)	13	3.7	8.4	0.7	26.0	4.6
2017F	70	14	11	611	(66.0)	16	15.5	10.8	4.1	26.3	3.2
2018F	83	17	14	738	20.9	20	12.9	8.8	3.8	30.6	4.2
2019F	95	21	16	870	17.8	24	10.9	7.4	3.6	33.6	5.3

주1: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 2: 2017년 이전 EPS는 무상증자 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원익IPS(240810)

## 매수(유지)

목표가: 44,000원(상향)

종가(10/18): 32,900원

## 2018년 또 다른 성장을 기대한다

## ■ 목표주가 44,000원 제시

국내 반도체장비 대표업체인 원익IPS에 대해 목표주가 44,000원을 제시한다. 목표주가는 2018년 추정EPS에 목표 PER 15배를 적용했다. 2018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설비투자가 올해 대비 증가할 전망이고 원익IPS의 점유율 상승도 예상돼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최근 주가가 고점대비 11% 조정을 받았지만 주요 고객사의 장비발주가 12월부터 다시 본격화되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전망이다. 글로벌 장비업체들의 증착장비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잠식하면서 성장하는 원익IPS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추천한다.

## ■ 2018년 매출액 6,919억원, 영업이익 1,571억원

2018년 매출액은 6,919억원으로 11%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1,571억원, 영업이익률은 23%로 각각 전년대비 17% 증가, 1.1%p 상승할 것이다. 주요 고객의 3D 낸드 설비투자는 내년에도 올해 규모와 유사하게 집행될 전망이다. 새로운 발주가 곧 시작될텐데 원익IPS 주요 장비의 점유율 상승도 기대된다. 점유율 상승으로 고객사의 동일한 투자에 대해 수주규모가 증가해 낸드용 장비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22% 증가할 전망이다. 디램 장비도 고객사의 공정 전환과 신규투자 지속으로 올해대비 수주규모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 ■ 국내 반도체 증착장비 시장점유율 지속 상승

원익IPS를 포함한 국내 증착장비업체들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6년 국내 대표 증착장비업체인 원익IPS를 포함한 테스,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의 증착장비 시장점유율은 7.4%로 전년대비 0.5%p 높아졌다. 그 중 원익IPS의 점유율이 2.8%로 가장 높다. 2017년에도 국내 증착장비업체들의 반도체 증착장비 매출액 증가율이 글로벌 업체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점유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전세계 반도체 증착장비 시장은 2018년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반면 국내 주요 증착장비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20%로 예상된다. 원익IPS의 경우 2018년 반도체장비의 매출액 증가율이 15%로 평균 수준이다.

## ■ 고객기반 확대 가능성

2018년에 주요 고객 외 고객기반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 기존 국내외 장비공급업체와의 경쟁이 있어 장비수주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테스트와 장비개발로 점차 시장진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양산라인으로의 장비공급이 시작될 경우 2018년 이후 실적의 업사이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	-	-	-	-	-	-	-	-	-	-
2016A	244	29	23	546	NM	40	48.0	26.4	3.4	10.3	-
2017F	621	134	102	2,482	354.6	147	13.3	8.7	4.2	37.9	-
2018F	692	157	120	2,916	17.5	171	11.3	7.3	3.1	31.5	-
2019F	796	181	137	3,311	13.5	196	9.9	6.1	2.3	26.7	-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화승엔터프라이즈(241590)

매수(유지)

목표가: 23,000원(유지)

종가(10118): 17,850원

### 3Q17 Preview: 4분기부터 재개되는 성장 모멘텀

#### ■ 비수기이나 2분기보다 매출 증가세 회복 전망

비수기인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530억원, 영업이익은 12% 증가한 86억원(영업이익률 5.6%, -0.2%p YoY)으로 낮아진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생산 캐파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금년 실적은 4분기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단, 2분기 말 급증한 재고(+52% YoY)가 일부 3분기에 반영되면서 2분기 달러 기준 전년 대비 7% 성장을 바탕으로 3분기 두자리수 성장이 회복될 전망이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원가 절감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3분기부터 고부가 부스트 생산이 시작되면서 초기 비용이 발생,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전년과 유사할 전망이다.

#### ■ 4분기부터 성장 모멘텀 재개: 성수기에 오더 집중, 2018년은 공장 인수 효과까지

금년 선적이 성수기인 4분기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2~3분기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낮으나 4분기에는 베트남 법인에서만 약 30%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화승인더스트리로부터의 중국, 인도네시아 공장 인수 효과가 가세할 것이다. 4분기와 2018년 예상 매출 성장률은 각각 42%, 49%다. 중국, 인도네시아 공장의 2017년, 2018년 합산 매출액은 약 2,200억원, 2,600억원 수준으로 530억원 인수 금액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기존 베트남 2017년 5,500만 족 캐파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가세, 2018년 8,000만 족, 2020년 1억 족 캐파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글로벌 1위 Yue Yuen의 캐파는 약 3억 족, 나이키 2위 벤더인 Feng Tay의 캐파는 금년 1억 족 수준이다. 베트남이 2017년 5,500만에서 2020년 7,000만 족으로, 인도네시아가 6백만에서 2,000만, 중국은 1,000만 족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공장의 공격적인 증설은 현재 베트남과 중국에 생산 거점이 편중되는 아디다스의 생산 지역 다각화 노력과 일맥 상통한다.

#### ■ 수익성 점검: 1) 인도네시아 수출 정상화, 2) 부자재 생산 3)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저마진 인도네시아 법인 합산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은 금년 6.8%에서 2018년 6.5%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2016년부터 생산 시작, 순손실 54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분기별로 매출 규모가 확연하게 증가하면서 금년 2분기 흑자 전환, 5%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우리의 인도네시아 법인 영업이익률 가정은 1.7%로 보수적이며 빠른 정상화 시 수익성 상향 요인이다. 부자재 생산 또한 변수이다. 동사가 3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한 부스트 폼은 단가가 5~6달러에 달하고 동사는 이로부터 2018년 약 300~400억원 매출과 영업이익률 1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기 요인이 전적으로 반영된다면 베트남 법인의 영업이익률 약 1%p 개선 효과가 있는 반면 우리는 베트남 법인 2018년 영업이익률을 7.2%로 금년보다 0.3%p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이다. 마지막으로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로 ASP 상승도 진행형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391	14	12	NA	NM	19	NM	NM	NM	22.3	NM
2016A	640	44	35	NA	NM	62	NM	NM	NM	27.2	NM
2017F	787	54	42	1,557	NM	77	11.5	6.2	1.9	17.4	0.2
2018F	1,179	77	61	2,005	28.8	105	8.9	4.6	1.5	18.8	0.3
2019F	1,420	90	71	2,342	16.8	122	7.6	3.8	1.3	18.1	0.3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13(금)	10/16(월)	10/17(화)	10/18(수)	10/19(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473.62	2,480.05	2,484.37	2,482.91	2,473.06
	등락폭		-1.14	6.43	4.32	-1.46	-9.85
	등락종목	상승(상한)	272(0)	394(1)	403(1)	289(2)	467(0)
		하락(하한)	519(0)	411(0)	384(0)	510(0)	316(0)
	ADR		81.95	86.29	86.69	83.06	87.80
	이격도	10 일	102.54	102.42	102.16	101.64	100.82
		20 일	103.13	103.11	103.02	102.71	102.06
	투자심리		50	60	70	70	70
	거래량	(백만 주)	235	224	199	244	233
	거래대금	(십억 원)	6,824	6,175	5,323	5,827	6,763
코스닥	코스닥지수		663.08	659.41	670.51	668.42	667.10
	등락폭		-3.46	-3.67	11.1	-2.09	-1.32
	등락종목	상승(상한)	269(1)	358(1)	671(3)	375(3)	665(3)
		하락(하한)	896(0)	803(0)	444(0)	756(0)	470(0)
	ADR		74.97	75.95	78.44	75.22	79.08
	이격도	10 일	101.54	100.82	102.07	101.35	100.88
		20 일	100.65	100.05	101.63	101.25	100.99
	투자심리		60	60	70	60	50
	거래량	(백만주)	617	554	700	714	704
	거래대금	(십억원)	4,935	3,894	4,218	4,564	4,274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436.1	1,690.2	1,517.8	576.2	99.5	163.3	160.7	18.5	499.6
	매도		3,440.6	1,701.3	1,560.6	359.9	125.9	257.2	143.8	18.7	655.2
	순매수		-4.5	-11.2	-42.8	216.4	-26.4	-93.9	16.9	-0.2	-155.6
	10 월 누계		-361.5	1,604.5	-1,397.7	-70.5	-169.6	-418.3	87.3	-21.2	-805.5
	17 년 누계		-5,871.1	6,803.0	-4,805.0	6,354.1	-1,751.6	-3,400.8	-32.6	-731.5	-5,242.8
코스닥	매수		3,642.5	340.9	283.9	105.8	20.6	32.9	40.3	3.4	80.9
	매도		3,685.8	316.1	257.3	50.0	24.2	54.6	39.1	3.0	86.5
	순매수		-43.2	24.8	26.5	55.8	-3.6	-21.7	1.2	0.3	-5.6
	10 월 누계		409.0	382.9	-720.6	-109.4	-50.5	-232.2	-114.4	4.9	-219.0
	17 년 누계		3,121.7	2,377.6	-4,164.7	-1,026.9	-370.2	-969.4	-591.0	-116.7	-1,090.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14,525	전기전자	-47,669
운수장비	8,095	기타금융업	-14,186
음식료	1,366	유통업	-7,316
KODEX 레버리지	9,243	삼성전자	-30,003
LG전자	8,192	SK하이닉스	-8,986
한미약품	5,759	엔씨소프트	-7,453
한국항공우주	4,539	삼성바이오로직스	-6,946
KODEX 200	4,072	삼성전기	-6,511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31,443	전기전자	-111,020
서비스업	19,170	의약품	-13,338
기타금융업	16,922	미분류	-5,184
NAVER	15,932	삼성전자	-75,658
한국항공우주	10,748	SK하이닉스	-29,611
LG전자	9,964	삼성바이오로직스	-23,463
한미약품	9,401	삼성전기	-12,709
한국전력	9,154	KODEX 200	-8,20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32,015	유통업	-1,942
은행	1,472	기계	-1,197
전기가스	1,230	운수장비	-998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9,959	KBSTAR 200	-5,636
KODEX 레버리지	7,459	SK	-3,025
TIGER 글로벌4차 산업혁신기술(합성 H)	4,017	SK네트웍스	-1,629
TIGER 200 IT	3,582	OCI	-1,513
TRUE 코스피 양매도 ETN	2,541	두산인프라코어	-1,48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2,451	전기전자	-37,987
미분류	10,356	화학	-3,184
전기가스	3,032	보험업	-2,320
한국항공우주	8,855	삼성전자	-26,051
KOSEF 200	7,836	SK하이닉스	-7,589
NAVER	7,187	삼성전기	-4,950
KODEX 200	6,337	엔씨소프트	-3,829
한미약품	3,789	카카오	-3,496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82,687	전기전자	-129,764
기타금융업	20,477	의약품	-18,886
운수창고	8,828	철강금속	-13,212
LG전자	40,572	삼성전자	-120,883
NAVER	33,117	삼성바이오로직스	-39,685
한국항공우주	32,857	엔씨소프트	-32,137
현대차	17,184	삼성전기	-22,082
한미약품	15,415	SK하이닉스	-18,785
현대중공업	11,066	카카오	-13,880
LG	9,277	POSCO	-10,620
한국전력	9,204	OCI	-9,029
KB금융	8,816	SK	-7,199
대한항공	7,310	삼성SDI	-6,993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의약품	44,480	전기전자	-96,198
철강금속	29,344	서비스업	-30,412
운수장비	26,186	통신업	-13,061
LG전자	58,323	SK하이닉스	-85,865
삼성바이오로직스	26,722	삼성전자	-53,044
POSCO	24,454	NAVER	-31,192
현대모비스	19,033	엔씨소프트	-20,881
한미약품	17,747	현대차	-12,694
한국항공우주	13,731	LG이노텍	-12,410
한국전력	12,699	호텔신라	-9,497
LG화학	12,292	기업은행	-7,686
SKI노베이션	11,205	LG유플러스	-7,433
삼성물산	11,123	이마트	-6,47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3,654	제약	-11,422	반도체	5,698	제약	-14,141
IT부품	2,281	도매	-8,822	디지털컨텐츠	3,169	도매	-4,679
금융	462	디지털컨텐츠	-3,666	출판,매체복제	1,565	금속	-987
SK머티리얼즈	2,527	셀트리온	-14,753	SK머티리얼즈	3,398	셀트리온	-18,433
휴젤	1,374	셀트리온헬스케어	-8,574	메디톡스	2,780	셀트리온헬스케어	-5,252
애플론	1,317	컴투스	-2,737	이오테크닉스	2,533	이더블유케이	-784
이오테크닉스	1,163	서울반도체	-815	컴투스	1,738	포스코컴텍	-619
에코프로	976	포스코컴텍	-762	로엔	1,528	AP시스템	-60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537	제약	-910	방송서비스	1,978	제약	-9,640
의료,정밀기기	203	도매	-119	반도체	1,779	도매	-2,515
금속	160	IT부품	-97	디지털컨텐츠	1,666	음식료,담배	-654
네오위즈	463	셀트리온	-1,000	CJ E&M	2,137	셀트리온	-9,672
오스템플란트	267	비에이치	-310	파라다이스	1,281	셀트리온헬스케어	-2,605
실리콘웍스	203	셀트리온헬스케어	-206	휴젤	1,093	테라세미콘	-884
유진테크	176	GS홈쇼핑	-205	펄어비스	955	케어젠	-746
메디톡스	121	SK머티리얼즈	-196	웹젠	916	매일유업	-617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23,903	도매	-19,033	반도체	13,189	제약	-8,865
방송서비스	11,536	제약	-5,350	IT부품	7,984	디지털컨텐츠	-3,832
IT부품	6,135	비금속	-1,550	기계,장비	4,574	방송서비스	-3,384
CJ E&M	9,136	셀트리온헬스케어	-19,809	원익IPS	4,068	메디톡스	-7,036
SK머티리얼즈	8,386	셀트리온	-17,574	테라세미콘	3,395	펄어비스	-4,640
이오테크닉스	5,917	케어젠	-2,465	에스에프에이	2,275	코오롱생명과학	-2,076
휴젤	4,014	컴투스	-1,488	파라다이스	2,077	CJ E&M	-1,577
메디톡스	3,897	포스코컴텍	-1,435	휴젤	2,071	GS홈쇼핑	-1,432
에코프로	3,839	신라젠	-1,115	컴투스	2,000	웹젠	-1,237
주성엔지니어링	3,254	매일유업	-1,025	셀트리온헬스케어	1,926	메디포스트	-1,222
웹젠	2,403	민앤지	-927	엘앤에프	1,472	홈캐스트	-1,122
GS홈쇼핑	2,250	서울반도체	-907	AP시스템	1,452	바이로메드	-1,113
동진썸미켈	2,211	룽투코리아	-898	유진테크	1,269	휴온스글로벌	-97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동양고속	45 일	현대엘리베이	15 일
유화증권	41 일	동일고무벨트	12 일
SBS미디어홀딩스	34 일	롯데하이마트	12 일
KISCO홀딩스	29 일	신세계 I&C	12 일
S&T홀딩스	27 일	에스원	11 일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24 일	더존비즈온	11 일
애경유화	22 일	오뚜기	11 일
노루홀딩스	20 일	LG	11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AP위성	28 일	동원개발	42 일
씨큐브	27 일	경동제약	19 일
금강철강	24 일	네오팜	12 일
씨노텍	20 일	대원산업	12 일
유안타제2호스팩	19 일	휴온스	10 일
한일사료	19 일	코데즈컴바인	10 일
포비스티앤씨	18 일	엑세스바이오	9 일
선광	18 일	브이원텍	9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NAVER	121,532	LG전자	116,529
POSCO	65,132	넷마블게임즈	76,532
LG전자	64,345	LG화학	50,603
아모레퍼시픽	56,322	POSCO	45,308
삼성물산	55,373	LG생활건강	37,958
한국전력	54,048	삼성물산	36,886
코스맥스	42,217	LG	27,735
호텔신라	39,857	한미약품	27,017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CJ E&M	29,453	셀트리온	313,227
파라다이스	15,475	셀트리온헬스케어	24,383
웹젠	9,308	파라다이스	20,295
이오테크닉스	9,167	에코프로	12,752
모두투어	7,947	서울반도체	12,521
에스엠	7,750	유진테크	6,758
GS홈쇼핑	6,177	펄어비스	6,181
코오롱생명과학	6,086	컴투스	6,161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82,687	26,186	108,872
기타금융업	20,477	19,326	39,804
전기가스	8,621	12,346	20,967
LG전자	40,572	58,323	98,895
한국항공우주	32,857	13,731	46,587
한미약품	15,415	17,747	33,162
현대모비스	6,605	19,033	25,638
한국전력	9,204	12,699	21,903
LG화학	3,999	12,292	16,291
LG	9,277	4,075	13,352
한화테크윈	5,913	5,217	11,129
신한지주	6,821	3,468	10,289
삼성생명	3,625	5,647	9,272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23,903	13,189	37,092
IT부품	6,135	7,984	14,118
기계, 장비	117	4,574	4,691
휴젤	4,014	2,071	6,085
원익IPS	430	4,068	4,499
에코프로	3,839	321	4,161
엘앤에프	2,167	1,472	3,639
에스에프에이	1,047	2,275	3,323
파라다이스	1,028	2,077	3,105
동진세미켐	2,211	559	2,770
한국전자금융	1,347	1,173	2,520
솔브레인	1,307	1,036	2,343
바텍	1,104	1,018	2,12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양홀딩스	27 일	진양화학	39 일	한양이엔지	23 일	레드캡투어	34 일
선도전기	20 일	KPX그린케미칼	34 일	경동제약	15 일	원일특강	29 일
유진투자증권	19 일	방림	22 일	모아텍	14 일	뉴트리바이오텍	28 일
세진중공업	17 일	미원화학	17 일	디에이테크놀로지	13 일	모아텍	24 일
SK가스	17 일	계룡건설	16 일	경남스틸	13 일	삼일	24 일
KODEX 미국S&P	16 일	동아지질	14 일	셀바스헬스케어	12 일	코메론	22 일
고배당커버드콜(합성 H)	16 일	ARIRANG 고배당주	13 일	아이쓰리시스템	11 일	한국가구	21 일
플무원	16 일	씨에스윈드	13 일	리더스코스메틱	11 일	대양전기공업	18 일
하이트진로홀딩스	16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312,148	SK하이닉스	-376,285	셀트리온	-279,923	메디톡스	-36,120
SK하이닉스	-221,181	NAVER	-102,322	셀트리온헬스케어	-168,369	비에이치	-19,575
삼성전기	-115,600	LG디스플레이	-45,393	신라젠	-14,203	SK머티리얼즈	-9,954
카카오	-78,845	엔씨소프트	-34,990	필어비스	-12,280	GS홈쇼핑	-8,355
삼성SDI	-68,493	삼성바이오로직스	-29,355	이녹스첨단소재	-10,701	주성엔지니어링	-7,745
삼성바이오로직스	-62,105	아모레퍼시픽	-23,994	상신전자	-9,648	더블유게임즈	-5,696
LG화학	-45,215	LG이노텍	-23,452	서울반도체	-9,487	인터플렉스	-3,723
SK이노베이션	-24,050	KODEX 레버리지	-21,758	에스엠코어	-8,575	코오롱생명과학	-3,701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129,764	-96,198	-225,962		도매	-19,033	2,231	-16,802	
서비스업	1,290	-30,412	-29,122		제약	-5,350	-8,865	-14,215	
미분류	-510	-12,781	-13,292		연구,개발	-262	-1,206	-1,468	
삼성전자	-120,883	-53,044	-173,927		씨엠에스에듀	-354	-628	-982	
SK하이닉스	-18,785	-85,865	-104,650		인바디	-302	-590	-892	
엔씨소프트	-32,137	-20,881	-53,018		에스엠	-698	-189	-887	
LG이노텍	-3,518	-12,410	-15,928		이더블유케이	-787	-55	-842	
롯데케미칼	-5,992	-4,863	-10,855		인트론바이오	-116	-693	-809	
삼성SDI	-6,993	-2,647	-9,640		원익머트리얼즈	-302	-459	-761	
KODEX 레버리지	-6,294	-3,281	-9,575		게임빌	-90	-639	-728	
KODEX 코스닥150	-5,217	-1	-5,217		KH바텍	-8	-672	-680	
레버리지					와이엠씨	-512	-132	-644	
KT	-4,044	-26	-4,070		유니슨	-187	-360	-547	
금호석유	-2,328	-2	-2,33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카카오	230	34,852
LG생활건강	18	19,055
삼성바이오로직스	48	18,868
만도	39	11,337
아모레퍼시픽	39	11,262
삼성전자	3	8,915
삼성전기	85	8,138
엔씨소프트	16	7,46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50	50,471
셀트리온헬스케어	196	12,724
신라젠	158	8,091
인터플렉스	53	2,996
JYP Ent.	146	1,557
메디투스	3	1,452
셀트리온제약	39	1,372
펄어비스	9	1,218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820	10,459,020
SK하이닉스	38,309	3,099,225
삼성바이오로직스	3,779	1,470,105
LG디스플레이	49,872	1,441,292
카카오	7,372	1,094,688
엔씨소프트	2,357	1,069,872
NAVER	1,253	1,020,832
현대차	6,740	1,014,39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6,554	5,101,100
신라젠	7,636	386,394
바이로메드	2,474	295,869
파라다이스	15,564	270,043
로엔	2,539	233,619
셀트리온헬스케어	3,553	224,197
메디투스	374	163,608
코미팜	4,118	151,553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기계	3,853	유통업	-6,599
운수창고	1,610	운수장비	-5,062
비금속	444	증권	-3,978
두산인프라코어	2,820	SK네트웍스	-4,570
현대상선	2,307	삼성중공업	-4,254
LG디스플레이	2,268	맥쿼리인프라	-2,759
한온시스템	953	LG전자	-1,812
기업은행	691	SK하이닉스	-1,357
금호타이어	651	SK증권	-1,252
에이블씨엔씨	558	KODEX 200	-1,214
KODEX 코스닥 150	524	IHQ	-1,136
한진칼	468	메리츠종금증권	-1,028
KEC	413	한화투자증권	-97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기계,장비	1,265	도매	-795
반도체	1,150	오락,문화	-506
제약	1,097	의료,정밀기기	-488
크루셜텍	876	서부T&D	-1,093
포스코 ICT	631	파라다이스	-626
포스코캠텍	613	상보	-408
셀트리온	591	시그네틱스	-334
SBI인베스트먼트	534	알비케이이엠디	-303
유니슨	496	디지털옵틱	-283
에스맥	448	동진세미켐	-275
하림	428	뉴인텍	-240
신라젠	398	보성파워텍	-232
스킨앤스킨	390	에프티이앤이	-210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13(금)	10/16(월)	10/17(화)	10/18(수)	10/19(목)
외국인	6,803.0	1,604.5	-157.9	-35.8	-27.4	-51.5	-32.0	-11.2
기관계	-4,805.0	-1,397.7	-80.7	109.4	49.4	-149.7	-46.9	-42.8
(투신)	-3,400.8	-418.3	-311.2	-103.6	-75.2	-19.2	-19.3	-93.9
(연기금)	2,431.9	176.7	34.0	21.8	14.3	51.2	-7.1	-46.3
(은행)	-731.5	-21.2	4.3	4.1	3.3	-4.6	1.6	-0.2
(보험)	-1,751.6	-169.6	-126.9	-28.1	-12.2	-23.9	-36.4	-26.4
개인	-5,871.1	-361.5	-50.1	-113.5	-71.7	145.8	-6.2	-4.5
기타	3,873.0	154.8	288.7	39.9	49.7	55.5	85.2	58.5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10/12(목)	10/13(금)	10/16(월)	10/17(화)	10/18(수)
KOSPI	1,961.3	2,026.5	2,482.9	2,474.8	2,473.6	2,480.1	2,484.4	2,482.9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6,230.9	26,196.1	24,541.0	24,213.6	26,230.9	24,872.7
(증감액)	6,853.1	58.8	2,118.3	2,088.7	-1,655.1	-327.4	2,017.3	-1,358.2
(회전율)	28.8	24.8	36.4	37.1	47.9	41.6	36.4	41.8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937.9	1,744.6	-1,694.0	-336.1	2,040.1	-1,324.0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4,087.1	4,008.0	4,043.6	4,074.5	4,087.1	4,081.0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4,322.1	4,267.2	4,272.7	4,310.2	4,322.1	4,322.9
미수금	151.0	125.6	186.8	134.8	161.4	165.9	186.8	205.3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0/11(수)	10/12(목)	10/13(금)	10/16(월)	10/17(화)
전체 주식형	71,841	-4,368	-669	-40	-181	-370	-95	57
(ex.ETF)		-5,386	-323	37	-64	-129	-122	-48
국내주식형	54,074	-4,335	-640	9	-228	-365	-60	58
(ex.ETF)		-5,419	-376	3	-111	-124	-87	-48
해외주식형	17,768	-33	-29	-49	47	-4	-35	-1
(ex.ETF)		33	53	34	47	-4	-35	-1
주식혼합형	9,069	1,029	5	14	-8	-19	20	-6
채권혼합형	20,394	-5,949	-68	18	9	-22	-32	-34
채권형	104,139	1,500	-924	-6	-221	-362	-36	-58
MMF	115,808	7,836	8,811	2,181	1,367	6,389	-1,092	68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13(금)	10/16(월)	10/17(화)	10/18(수)	10/19(목)
한국	5,875	1,410	-145	-32	-24	-46	-28	-15
대만	7,504	1,222	565	88	164	11	116	186
인도	4,818	-688	-251	-240	27	-39	-	-
인도네시아	-1,383	-572	-209	-14	-37	-72	-86	-
태국	457	176	-35	-	37	-22	-50	-
남아공	-5,168	395	64	19	36	27	-18	-
필리핀	1,032	-34	10	13	-	10	-13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6년말	10/13(금)	10/16(월)	10/17(화)	10/18(수)	10/19(목)
회사채 (AA-)	2.14	2.46	2.47	2.48	2.48	2.55
회사채 (BBB-)	8.27	8.71	8.72	8.73	8.73	8.80
국고채 (3년)	1.64	1.92	1.93	1.95	1.94	2.01
국고채 (5년)	1.80	2.12	2.13	2.15	2.14	2.21
국고채 (10년)	2.08	2.39	2.40	2.40	2.39	2.43
미 국채 (10년)	2.56	2.27	2.30	2.30	2.34	-
일 국채 (10년)	0.06	0.06	0.06	0.07	0.07	-
원/달러	1,210.50	1,128.90	1,127.80	1,132.50	1,129.90	1,132.40
원/100엔	1,030.04	1,008.76	1,009.58	1,007.74	1,000.53	1,002.12
엔/달러	117.52	111.91	111.71	112.38	112.93	113.00
달러/유로	1.05	1.18	1.18	1.17	1.18	1.18
DDR3 1Gb (1333MHz)	1.15	1.24	1.24	1.23	1.25	-
DDR3 2Gb (1333MHz)	1.50	1.69	1.69	1.69	1.74	-
NAND Flash 16Gb (MLC)	1.87	2.95	2.95	2.95	2.95	-
CRB 지수	193.97	187.28	187.08	186.70	186.46	-
LME 지수	2,663.2	3,266.1	3,325.5	3,280.4	3,269.3	-
BDI	961	1,485	1,523	1,552	1,566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51.45	51.87	52.11	52.26	-
금 (달러/온스)	1,131.35	1,299.60	1,303.30	1,284.75	1,280.2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韓> 북한 노동당 창건일 日> 8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2380, 2223, 2320)	美> <b>FOMC 회의록 공개</b> 10월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2.1%, n/a, -0.4%) 日> 8월 핵심기계수주 MoM (3.4%, 1.0%, 8.0%)	韓> 옵션만기일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43, 250, 260) 9월 PPI MoM (0.4%, 0.4%, 0.2%) 日> 9월 PPI YoY (3.0%, 3.0%, 2.9%) 8월 3차 산업지수 MoM (-0.2%, 0.1%, 0.1%)	韓> 삼성전자 3Q 잠정실적 美> 9월 CPI MoM (0.5%, 0.6%, 0.4%) 10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101.1, 95.0, 95.1) 9월 소매판매 MoM (1.6%, 1.7%, -0.2%)
16	17	18	19	20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2.0%, n/a, 2.1%) 中> 9월 CPI YoY (1.6%, 1.6%, 1.8%) 9월 PPI YoY (6.9%, 6.5%, 6.3%)	美> 9월 광공업생산 (0.3%, 0.0%, -0.9%) 유럽> 9월 CPI YoY (1.5%, n/a, 1.5%) 10월 ZEW 서베이 예상 (26.7, n/a, 31.7)	韓> 9월 실업률 SA (3.7%, 3.7%, 3.8%) 美> <b>베이지북 공개</b>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3.6%, n/a, -2.1%) 9월 주택착공건수(천건) (1127, 1190, 1180) 中> 19차 당대회	韓> 금융통화위원회 (1.25%, 1.25%, 1.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243) 9월 선행지수 (n/a, 0.1%, 0.4%) 中> 3Q GDP YoY (6.8%, 6.8%, 6.9%) 日> 8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0.1%, n/a, -0.1%)	美> 연준 옐런 연설 9월 기존주택매매(백만건) (n/a, 5.32, 5.35) 유럽> EU 정상회담
23	24	25	26	27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2.1%) 유럽> 10월 소비자대지수 (n/a, n/a, -1.2)	美> 10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3.1) 유럽> 10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n/a, 58.1)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n/a) 9월 내구재 주문 (n/a, 0.3%, 2.0%) 9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550, 560)	韓> 3Q GDP YoY (n/a, n/a, 2.7%)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n/a) 9월 도매재고 MoM (n/a, n/a, 0.9%) 유럽> <b>ECB 통화정책회의</b> (n/a, -0.4%, -0.4%) 9월 M3 통화공급 YoY (n/a, n/a, 5.0%)	美> 3Q GDP 연간화 QoQ (n/a, 2.0%, 3.1%) 10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n/a, n/a) 日> 9월 CPI YoY (n/a, n/a, 0.7%)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